

2026년 6월 18일

# 보도참고자료

이 자료는 6월 19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 
주십시오. 단, 통신/방송/인터넷 매체는  
6월 18일 12:00 이후부터 취급 가능

제 목 : 굴곡압착방식의 주화 폐기 개시

□ 한국은행은 폐기대상 주화\*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굴곡압착 방식의 주화 자체 소각(폐기)을 지난 5월부터 본격 개시하였음

\* 오염, 훼손 등으로 재발행이 적합하지 않은 주화

- 굴곡압착 소각(銷却)은 주화를 특수설비를 이용하여 압착, 굴곡을 만듦으로써 주화의 외형을 제거하는 방식으로, 동 방식으로 처리된 주화는 더 이상 화폐로 인정되지 않음
- 시중에서의 사용 감소 등으로 주화의 환수가 늘어나면서 폐기대상 주화의 보유량이 증가하는 데 대응하여 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로, 기존의 외부 용해소각 방식과 병행하여 활용할 계획

“자세한 내용은 <붙임> 참고”

문의처 : 발권국 발권기획팀 팀장 강호석, 차장 차재훈

Tel. (02) 759-4102, 4132

공보관 : Tel. (02) 759-4015, 4016

“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**한국은행**  
BANK OF KOREA

<붙임>

## 주화소각설비를 이용한 자체 주화소각(폐기) 개시

- (실시 배경) 한국은행은 최근 주화 사용 감소 등으로 주화 환수가 늘어나면서\* 폐기대상 주화\*\*의 보유량이 증가하는 데 대응하여 굴곡압착 설비를 최초로 도입하여 자체 주화소각(銷却)을 개시(2026.5월)
  - \* 2020년 이후 주화 순환수 기조로 전환
  - \*\* 오염, 훼손 등으로 재발행이 적합하지 않은 주화
- 이는 늘어난 폐기대상 주화의 소각을 보다 효율적으로 신속히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, 기존 외부 용해소각\* 방식에 추가하여 실시
  - \* 외부 업체의 용해로를 이용하여 용해
- (처리 방식) 주화를 압착하여 굴곡을 만드는 방식\*(굴곡압착, waffling)으로 처리하며 굴곡압착된 주화폐기물은 화폐로 사용할 수 없음\*\*
  - \* 10개 국 이상에서 같은 설비로 소각중
  - \*\* 한쪽면에 무효(void)를 뜻하는 'V'자를 압인(사진 참조)
- 한국은행은 최종적으로 용해될 때까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나, 만일 굴곡압착소각된 주화폐기물을 입수해 화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화위조 관련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에 유의
- (주화 발행과 무관) 한국은행의 주화 자체소각과 관계없이 국민들의 주화 사용을 뒷받침하는 발권 정책은 종전대로 유지됨
  - 주화는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 발행·환수될 것이므로, 국민들께서는 종전대로 주화를 사용하시면 됨

**주화소각설비 외형**



**주화폐기물**

